

삼겹살 대란 오나...돼지고깃값 상승 ‘본격화’

ASF 영향 수입물량 급감하면서 도매가 상승
“올해 국제 돈육 시세 역대 최고치 전망” 우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돼지고깃값 상승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돼지고깃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kg당 5천800원 선이던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의 수입 냉동 삼겹살 시세(도매가)는 이달 말 현재 kg당 6천400원까지 올랐다. 불과 한 달 만에 시세가 10% 이상 뛴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삼겹살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

입물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보통 4-5월 사이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가격이 2-3% 정도 소폭 오르긴 하지만 10% 이상 오른 것은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ASF의 영향이 국내에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는 이미 국내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20일까지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천789t보다 16.7% 감소한 6만9천830t에

그쳤다. 해외 시장에서도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ME) 거래 자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돈육 선물 가격은 지난 3월 초 파운드당 65센트 선에서 지난 23일 기준 81.7센트까지 치솟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국제 돼지고기 시세 급등세가 이미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수입 비중이 큰 스페인산 수입 돈육의 직매입 시세는 지난해 5월 kg당 4달러 초반에서 현재는 5달러 중반대까지 3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에는 유통업체와 대형 수입상 등이 벨기에산 돈육을 많이 판매했으나,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벨기에산 돈육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스페인산 돈육의 수입가가 상승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산 돼지고기를 주로 취급하는데 최근 유통화 환율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올해 들어 줄곧 1천300원 아래에서 가격을 형성하던 유통화 환전 고시 환율은 지난 24일 현재 1천330원 선까지 상승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지역본부, 장애인과 봄 나들이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봄날의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 담양 온누리재활원 장애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시원한 바다가 맞이하는 목포로 봄 나들이를 떠났다. 이날 봄 나들이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바깥활동에 제약이 있던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더불어 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기아차와 장애인 단체 사이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후성기자

산단공, 기업성장지원단 개소·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는 기업육성을 위해 ‘기업성장지원단’을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성장지원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성장지원센터’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지역 기업성장 수요와 4차 산업 대응을 위해 새롭게 재편됐다. 주요지원 서비스는 ▲성장유망기업에로해결 ▲중점육성기업 집중지원 ▲프로젝트 R&D과제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등이다. /임후성기자



손보협회 ‘교통사고 줄이기’ 동참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 지역본부가 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과 전남지역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추진과 관련, 고령자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무안경찰서에 지난 24일 교통안전제품(고령자용 야광지팡이 100·반사지 농도 230개)을 전달했다. 김양식 본부장은 “경찰청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향후에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약자인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

구간별 지급 수준 높아져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높인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채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이 높아진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박은성기자

또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현재 지급률은 ‘7천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일례로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포상금은 기존 1억2천500만원에서 1억7천500만원으로 오른다.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으나 개정안은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포상금도 높였다. /박은성기자



청춘발산 골목마켓 운영 중. 청춘발산 골목마켓이 지난 25일 서구 양3동 청춘발산 창조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서대석 청장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로또판매점 3년간 2천400곳 늘어난다

온라인복권(로또)을 살 수 있는 판매점이 2천400곳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19-2021년 3년간 전국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총 2천371곳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에 대처하고 편의점 법인의 온라인복권 판매권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2004년 9천845곳이었지만, 경영상 문제나 점주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지난해 말 7천211곳으로 줄었다. 또 기재부가 편의점 법인에 내렸던 온라인복권 판매권 640개를 2021년까지 회수하기로 하면서 판매점을 추가 모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불안 투자자들 금·달러로 몰려

경제 성장세 둔화·화폐단위 조정설 등 영향

국내 금 판매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달러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조정) 추진설도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바 판매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신한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 4곳(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의 지난 22일 현재 5월 골드바 판매액은 107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골드바 월간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26억8천만원에서 올해 1월 24억6천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월 32억9천만원, 3월 37억1천만원으로 늘었고 4월 들어서는 81억7천만원으로 뛰더니 이달에는 22일 기준으로 이미 100억원 선을 돌파했다. 금 거래량도 불어났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번 달 일평균 금 거래량(24일 기준)은 33.6kg으로 3월 17.2kg, 4월 22.0kg보다 대폭 늘어났다. 민간 금 유통업체인 한국금거래소도 골드바 판매량이 4월 177kg을 넘었고 이번 달에는 220kg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세 둔화, 무역분쟁 격화 등으로 불안 심리가 커진 데다 리디노미

네이션 이슈가 가세해 골드바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의 인기도 커졌다.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달러화 정기예금은 이달 22일 기준 129억2천7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6천400만달러 증가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더해 지난달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자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룡 신한PWM판매센터 PB팀장은 “국내 경기가 불안하고 무역갈등이 있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나타나 달러와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기 공 사

(5/7 개강)
[교육내용]
- 동력제어반공사, 동력설비공사
- 배관공사, 전열공사, 조명공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취득 자격증]
- 전기기능사, 송강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태양광발전설비

(5/20 개강)
[교육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 발전장치 전기시설 및 토목공사
- 태양광발전연계장치, 전기CAD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냉 동 공 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6/3 개강)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5/16 개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자동차(전기전자)정비

[교육내용]
- 엔진점検장치정비비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정비
[취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6/3 개강)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

CMYK